# 베트남 호치민 11월 보고서

| 정 슬 빈 ( B i c h )  김 희 주 ( D u n g )

# 11월 일정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 2<br>휴가 | 3<br>휴가 | 4<br>중간평가<br>준비 | 5<br>중간평가<br>준비 | 6<br>달랏 여행 | 7<br>달랏 여행 |
| 8<br>달랏 여행 | 9<br>중간평가<br>준비 | 10<br>중간평가<br>준비 | 11 - 13<br>중간평가<br>(중간평가/면담/호치민 국민은행 방문) | | | 14<br>이강호<br>간사님 귀국 |
| 15 | 16<br>Disabled<br>Children Club | 17<br>Le Dinh Chinh<br>Primary<br>School | 18<br>한국어<br>수업 준비 | 19<br>UTE<br>Korean<br>Center | 20<br>정동민<br>간사님 귀국 | 21 |
| 22 | 23<br>Disabled<br>Children Club | 24<br>Le Dinh Chinh<br>Primary<br>School | 25<br>YMCA<br>사무작업 | 26<br>YMCA<br>사무작업 | 27<br>UTE<br>Korean<br>Center | 28 |
| 29 | 30<br>Disabled<br>Children Club | | | | | |

# CONTENTS


01 휴가

02 중간평가

03 활동내용

04 에세이

# 01 휴가

# 0 1 휴 가

## | 달 랏 여 행

2015.11.06~2015.11.08 쉼, 달랏 여행

첫 휴가를 얻은 우리는 슬리핑 버스를 타고 달랏으로 향했다.
달랏은 베트남 남부의 해발 1,500 미터 중부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왜 달랏을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 01 휴가

## 달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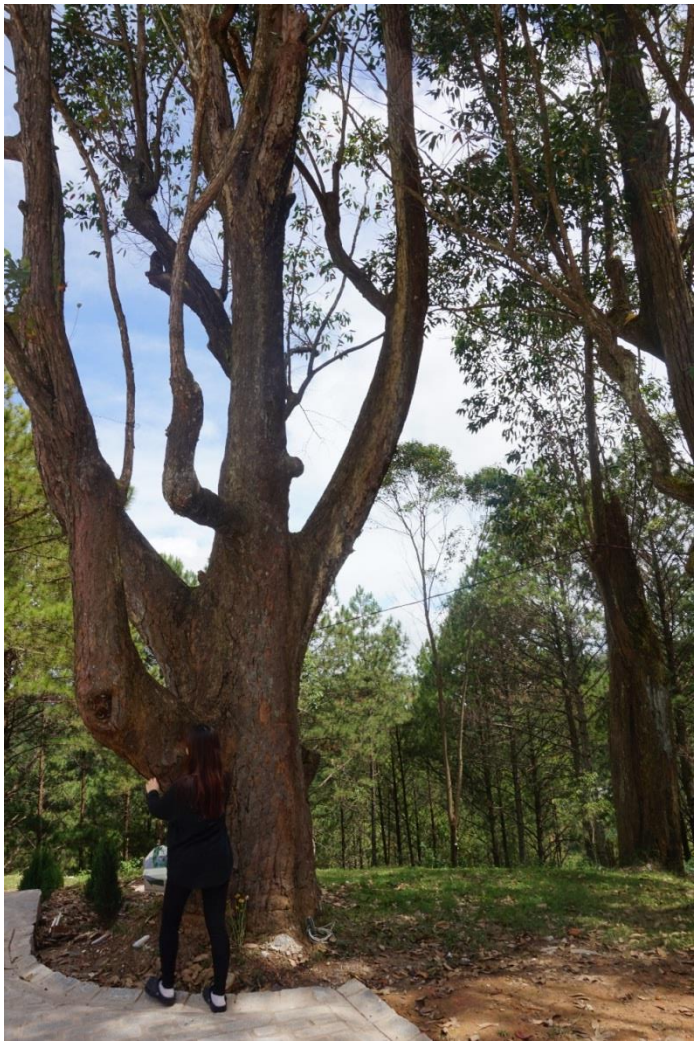
우리와 같이 갔던 베트남 친구들!

셀카 찍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Vy.
달랏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어서
우리를 리드해줬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정말 좋은 친구, Linh!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아이이다.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 01 휴가

## 달랏 여행



# 01 휴가

## 달랏 여행

# 01 휴가

## 달랏 여행

# 01 휴가

## 달랏 여행

달랏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비울 수 있었고 지쳤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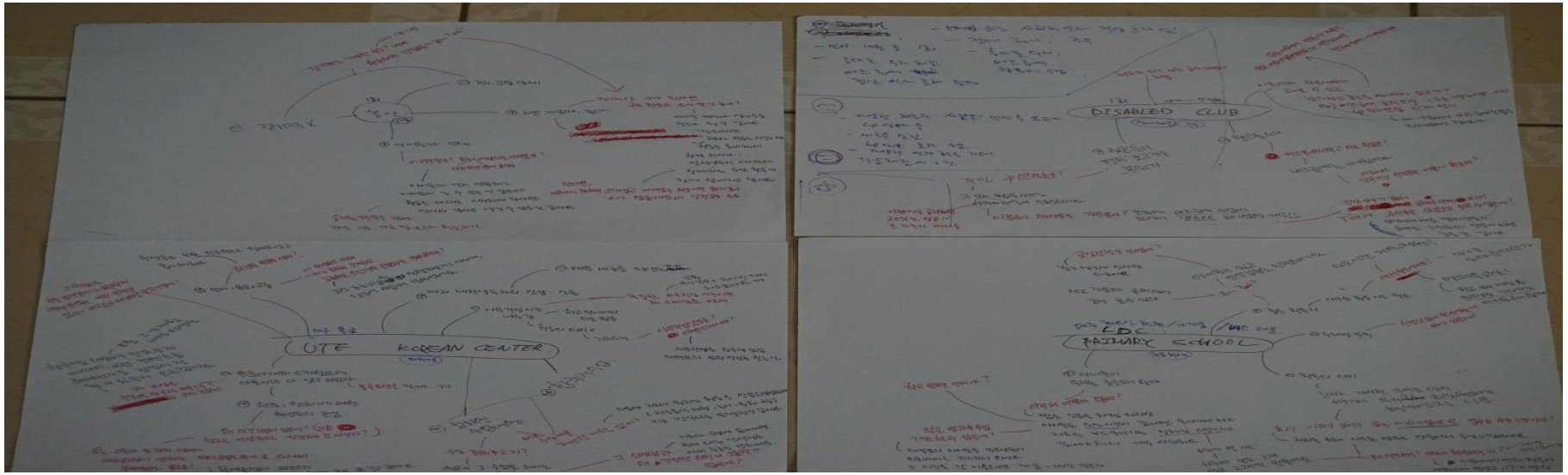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가 너무 좋았다.

# 02 중간평가

KB Kookmin Bank
Raonatti 14th
idterm Evaluation
In VietNam

# 02 중간평가

## I 중간평가 준비




중간평가 준비를 하면서 활동에 대해서, 현재 우리 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간사님들께서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 써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해주셔서 시작된 마인드맵!

동민 간사님, 강호간사님과 함께 생활, 그동안 갔던 활동지 5곳(초등학교, Disabled club, 홍안유치원, Korean Center)에 대해 정리•평가 해보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 활동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 02 중간평가

## I 중간평가 발표

어렵고, 착잡하게만 느껴졌던 중간평가 발표시간 ---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현지 YMCA와 한국 간사님들,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맞춰나가는 시간이었다.

# 02 중간평가

중간평가 발표가 끝난 후!

호치민 YMCA총장님과 코디들, 국민은행 이미현 대리님, 간사님들과 함께 한 저녁시간!!

# 02 중간평가

# 02 중간평가

## Ho Chi Minh 국민은행

# 02 중간평가

국민은행 이미현 대리님과 함께 한 시간!

대리님, 국민은행 경제금융 봉사단 폴라리스의 이하영 학생과  호치민 국민은행, 호치민 시내 이곳 저곳을 다녔다.

처음 뵙지만 너무나도 편하게 해주신 덕분에 중간평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한국 과자들을 잔뜩 선물해주고 가신 이미현 대리님 😀

# 02 중간평가

## I 중간 격려 기간

# 02 중간평가

## I 중간 격려 기간

쉬는 날을 이용해 현지 코디와 친구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했다.
간사님들이 한국에서 가져오신 재료로 주먹밥, 떡볶이,
미역국 등을 준비했는데 주먹밥과 떡볶이(만) 반응이 좋았다.

설거지는 강호 간사님과 동민 간사님께서 ☺

# 02 중간평가

## 중간 격려 기간

호치민 YMCA에서 버스를 타고 30분만 가면 호치민 시내가 나오는데

덕분에 간사님들과 함께 호치민 시내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동민 간사님 보호 차원 /사진 작게)

# 03 활동내용

# 03 활 동 내 용

## UTE KOREAN CENTER

11월 Korean Center에서 1번의 활동을 했다.
KOREAN CENTER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죄송했다.

한 번이었지만 수업 방식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는데
마침 이 수업이 중간격려 기간과 겹쳐 동민 간사님이 수업에 들어오셨었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특별 수업 같은 개념인데,
특별 수업인 만큼 다른 기존의 수업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기존에 센터에서 진행하던 것과 같이 조금 딱딱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간사님께서 여러 방법을 제안해주셨다.

12월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 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와 게임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 03 활 동 내 용

## Le Dinh Chinh 초등학교

11월에도 계속 된 보드 만들기 작업.

10월-11월 동안 총 7개의 알림판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앞에 보이는데도 함께 놀 시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12월 부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게 되었다.

# 03 활 동 내 용

## Disabled Children center

우리는 매주 월요일 Disabled Children Center에 간다.
오전에는 아이들 마사지를 해주고 걷는 연습하는 것을 같이 한다.
오후에는 이 센터에서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해서 보조 교사처럼
아이들이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 얼굴을 기억해주고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마다 인사해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 03 활 동 내 용

## Disabled Children center

# 03 활동내용

## YMCA 사무작업

간사님들과 함께 일정 조율을 한 후,
바로 다음주엔 홍안 유치원을 가기 어렵다는 현지 코디 분의 결정 때문에 우리는 Y에서 사무실 일들을 도와주었다. 곧 있을 워크캠프 준비하는 데 바쁘신 사무실 식구들의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홍안 유치원에 못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쉽기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즐겁게 했다.

# 04 개인별 에세이

# 11월 희주의 이야기

11월 내내 베트남에서의 지나간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생각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에 돌아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아니었다.
그냥 나, 베트남에서의 내 생활, 내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한 후 내 생각, 느낌들을 간사님들께 모두 털어놓았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 했던 이유, 느끼던 불편함은 아마 스스로에게 느끼는 아쉬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장애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식사를 도우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너는 지금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것이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사소한 장난을 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새로운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에서야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인지, 이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다.
3개월 동안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곳인데 너무 새롭고, 신기하다.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카페, 골목길, 사람들...
모두 원래 이곳에 있던 것들인데 나는 이제야 그것들을 보고 있다. 그 느낌이 참 몽글몽글하다.

# 11월 희주의 이야기 十장애 아동 센터에서

처음 장애 아동 센터에 갔던 날,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아이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놀기 위해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에게 깔끔한 옷을 입히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었다. 첫 날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일이 어려웠다.
아이들에게 새 크레파스를 건네며 급하게 인증샷을 찍어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또 같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것 또한 편견이 아닐까, 그 아이들이 장애 아동이라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려웠던 건
아닐까 내 스스로에게 자책감에 빠졌었다.

동민 간사님과 함께 장애 아동 센터에 갔던 날, 닫는 나눔 시간에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말씀 드렸다.
간사님은 평범한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더라면 내가 불편함을 안 느꼈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더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아이들이 얼굴에 뭘 묻히고 있어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런 모습마저 사랑스러워서 사진을 남기는 것이라면 다르지 않느냐고.

사진이 저마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이들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11월 슬빈이의 이야기

이제는 일상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반 이상 흘렀다.
그동안 나는 활동을 잘하고 싶고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고 싶어서 너무 애써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난 그냥 여기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욕심이 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하는 조급한 마음도 자꾸 든다.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생각은 꺼두기로 했다.
목표가 없는 것이 지금의 나에겐 더 필요한 것 같다. 천천히 순간순간을 느끼며 살아가려 한다.

호치민 팸-

12월 보고서에서 만나요